

큰 스님 수행한담

씨앗되어 열매 맺힌다

움직이지 않고 침범하지 않는 불성자리로 돌아가서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일여의 불성이 잠시도 우리와 떨어져 있는게 아니라...

불성을 나는 '가능성'이라는 말로 자주 표현을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능성, 노력에 따라 크게 개발 할수도 있고 적게 개발할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곧 불성입니다. 불성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불성 주춧돌 위에 서서 우리가 복잡한 현실속에서 참으로 불자답게 사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계부를 잘 쓸 것을 당부합니다. 가계부에 들어오지 못하는 돈 계산만 하지 말고 인생 전체를 회계하는 인생 가계부를 잘 계산하라고 부탁드리는 것이요. 인생 가계부의 수입은 복을 짓는 일이고 지출은 재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은 적게 짓고 재앙만 늘리면 적자인생입니다. 실사 지금 사는 형편이 전생에 지은 적자인생으로 고달프다고 한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금생 가계부를 착실하게 잘 운영하면 삶이 퍼질테니까요. 불성의 주춧돌 위에 서서 물질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사색, 물질에 한없는 애착을 일으키면서 내 몸과 마음과 대우주의 주춧돌을 허술하게 관리하면 결국 인생은 무너지고 맙니다. 제발 걸모습에 속지 말고 물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전에 나의 심화가 펼쳐를 한 대장만했습니다. 그 때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지요. "나는 지금 자동차를 산다면 액셀 증속자를 마련할 거야"라고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한결같이 "스님 체면에 말도 안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체면은 또 무엇이나"고 흥분하는 것입니다. 짧은 대화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협주소입니다. 이 나라는 물질로 값어치를 따지는 나라,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양 착각을 하며 사는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병폐들과 문제들은 불성을 인생의 주춧돌로 삼지 않고

니다. 동시에 우리의 부모 형제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성을 지닌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장차 부처가 될 존재인 분들을 존경하고 섬길 줄 아는 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불교를 타종교에서 하듯이 절대자를 부처로 정하고 그것을 믿는 가르침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어디에서나 어느 때에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불성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서야 합니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불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 절하고 보시

를 부모는 자식을 지마다 부처님으로 대우할 때 바로 일상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 것이고 또 한결금 한결금 그곳에 다가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바로 내 곁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일상속에서 내가 주변의 고마움에 얼마나 보답하고 있는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주변을 내 욕심 채우는 것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살펴봐도 금방 알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남편이나 자식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고 고마운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 욕심에 얼마나 맞춰 주는지만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주변의 고마움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베푸는 모든 것이 결국은 빚덩이가 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베풀지 않으면 언젠가는 갚아야 될 빚이 됩니다. 그러니 일상생활에서 빚을 갚듯이 그렇게 당연하게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정진하면서 주변의 고마움에 보답하는 진정한 불자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늘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할 때 경전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저 멀리있는 얘기로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서 겪는 생활 속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처님 법도 그러합니다.

늘 가까운 곳에서 실천하고 가꾸어 가야 합니다. 멀리 근사한 것에서 불법을 찾지 말고 일상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찾아 가야 합니다. 현재의 내 행동 하나가 바로 씨앗이 되어 언젠가는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잘 다스리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단속하며 생활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므로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노력을 통해 지혜의 눈을 떠서 생활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펴며 살아야겠습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이웃에 보답하는 생활 하세요 베풀지 않으면 빚덩이 됩니다”

살아가는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니 스스로를 무시하고 남을 무시해 버립니다. 불성에 대한 확신과 인식이 없기 때문에 불성이 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과 무상한 몸뚱이를 나로 생각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만을 위한 이기심이 생기게 되고 그 상대가 부모든 형제든 손해보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서로 헐고 싸우고 싸우기 서슴치 않게 되는 이 모든 현대의 문제들은 바로 우리 모두가 불성을 지닌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신이 지니고 있는 거룩하고 위대한 불성을 믿어야 합니다.

하고 염불하고 참선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각자에게 있는 불성을 확신하고 그것을 찾기 위한 한 과정인 것입니다.

불성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참선, 염불, 기도, 경전공부 여러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혹자들은 참선이 바른 길이고 빠르게 가는 길이라고 하고 혹자는 염불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떠한 공부방법으로 하더라도 귀결점은 같은 것이며, 다른 것은 각자 노력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상의 생활속에서 부모나 자식에게

부모나 자식에게 행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더욱 중요하합니다.

부모를 부처로 생각하고 아침저녁으로 공양하고 내 아들딸을 부처로 보고 생활속에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를 남편을 자식은 부모



◇일상생활속에서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불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하는 우룡스님. 스님은 인터뷰를 한시도 사양하다 어렵게 응했다.

불자는

부처님 집안사람답게

가풍대로

진리의 소리들고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대로 실천해야

불성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항상 의지와

노력에 따라

결실보는

열린 자리입니다

법륜사 대중처소 입주 안내문

지혜와 소원성취는 부처님 도량에서

삼보귀의 하소서!

급변하는 사회적인 제도하에 대가족적인 공경심과 추의 미덕이 핵가족 및 물질만능에 가려 참된 성품을 잃고 허무가 일년같이 빠른속도로 변화하는 열리고 실낱 시대속에서 허덕이다 보니 "나,我"라는 高貴한 존재가 망각되고 일그러져 가정,사회,직장 어느곳 요소마다 불안한 현실안에 "삶"과 함께 잠재해 있으므로 어느때 어느지 질병,초조,갈등,변화가 겹쳐 허무가 닥쳐올지? 우리 불자님께서는 "삼보"를 의지삼아 마음의 거울을 닦아 과거,현재,미래 생의 삼세 쉼을 떨쳐서 성불성취 하소서! 금번 법륜사 대중 수향처가 완공단계에 이르러 연병에 달는 불자 및 년로하신 분과 고시 준비생을 입주시켜 기도,불경,좌선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에 지혜의 등불이 되었고 삶에 지치고 사랑,믿음,좌절,배신,분노 열리고 쉼된 인간사의 병든 마음과 육군을 이곳 가야산과 지리산이 합쳐진 산수수려한 만대산 법륜사 대중처소에 오셔서 청정한 마음 열으소서!

아담한 현대식과 한옥이 어울린 최매의 설계로서 욕망, 휴게실, 독서실 및 자체농사로 무공해 음식을 제공하며 가족이 함께 심신을 맑게 하시도록 비구니 스님께서 행으로써 다함께 지혜와 마음 거울을 닦아 성불합시다!

법륜사 대중처소 내용별 구분 안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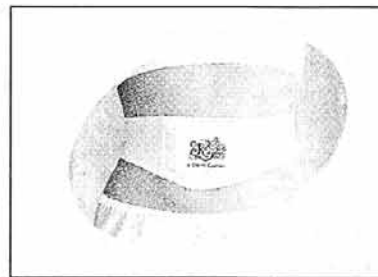
Table with 3 columns: Category (남·녀 총인원, 방 1실 인원, 방 1실 인원, 방 1실 인원, 고시 준비생, 문 의 처), Count (65명, 1명, 2명, 3명, 약간명), and Details (자적 및 연령 제한 없습니다!, \* 소실, \* 중실, \* 대실, \* 일생 수양하실분 가능함, \* 연령이 많으신분 우선, \* 小,中,大 방의 단담금에 관한 것은 문의처로 하십시오., \* 본사) 합 천 법륜사 : (0543)955-1379, \* 마산) 법륜사 포교원 : (0551)21-8775)

\* 빠른시일에 접수마감되오니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입양 접수일 : 1997년 5월 15 ~ 6월 31까지 (선착순 마감)

주 지 : 김 운 봉, 총무스님 : 손 자 혜, 교 문 : 이 기 우, 회 장 : 이 경 자 합 장, 회 주 : 최 복 남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를 사용한 체질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로 2~3년전부터 방광염과 불면증이 생기면서 기미가 끼기 시작했어요.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하루는 언니가 한약재 성분인 "항비"를 써보라 했습니다. 착용하는 동안 얼마 지나지 않아 불면증이 없어지고 기미도 알아지고 혈색도 잘 되는 것 같아 생활에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약 9개월이 되었는데 끈기있게 사용하고 있고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항비"에 고마움을 전하고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심하는 분들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희

대아가 임마의 땀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유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항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민첩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빠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노외감상선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려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